

4~5» 기사를 통해 되돌아본 2016년



8» 몰래산타 · 경희후원의 집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1. 신청대상 : 재학생 및 입학예정자
2. 1차 신청기간 : 2016. 11. 17(목) ~ 12. 13(화)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사진=이수형 기자)

“대학이 기만” 청소노조 총장실 점거 직고용 ‘경희모델’ 사실상 무산에 항의 표시

청소노동자 ‘직고용’ 갈등 폭발

이수형 기자 dltbd112@khu.ac.kr

지난 2일 공공운수노조 경희대본부(청소노조) 주도로 우리대학 청소노동자들이 총장실 점거에 나섰다. 자회사 설립을 통해 청소 노동자 직고용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른바 ‘경희모델’이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한 항의농성이다. 대학미화 외주업체인 C&S자산관리의 계약기간이 올해 말 만료되고, 대학이 다음해 초 용역업체 재경매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에 이달을 놓치면 경희모델 설립시기가 최소 2년 연장된다는 것이 노조 측의 입장이다. 11시 경부터 총장실을 점거한 청소노조는 대학본부와의 회의가 끝난 오후 8시 경에야 철수했다. 대학본부는 지난해 자회사를 설

립해 미화용역을 사설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이 직접 청소노동자 처우를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청소노조 측도 ‘대학이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하는 것에서 한 발 물러나 자회사 설립이라는 경희모델을 지지하고 나섰는데, 이후 설립계획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총장실 점거 사태에 이른 것이다.

청소노조 측은 사설 용역업체에 이용료를 제공하는 일에 의문을 제기한다. “용역업체로 들어가는 노동관리비가 노동자에게 들어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2년을 주기로 용역업체가 청소노동자들을 재고용하는 형태도 문제로 지적한다. 청소노조 백영란 부분회장은 인터뷰 중 한 청소노동자를 가리키며 “재고용 때문에 71세 나이에 신입사원인 분도 있다”며 “연

차가 2년마다 사라지니 몇 년을 일해도 월급 140만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백영란 부분회장은 항의농성 당시 “지금껏 논의된 자회사 설립안을 학교가 저버렸으니, 이제는 직접고용만을 원한다”고 분개했다.

청소노조는 점거 당일 오후 6시

경 성사된 대학본부와의 회의결과에 따라 5일 오후 1시 총장주재의 노사회의에 참석한다. 해당 회의에서 경희모델 설립안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소노조의 요구가 용역업체 재계약이 이뤄지는 다음해 초까지, 대학의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학내 주요 단체 임원 선거 속속 마무리

학내 주요 단체 임원 선거가 마무리됐다. 교수회의의 경우 전체 교수회의 및 서울지회에서 이성근 교수가 409표를 받아 송상호 교수를 누르고 당선됐으며, 국제지회에서는 길재호 교수가 찬성률 92.3%로 의학지회에서는 이석환 교수가 86.5%의 찬성률로 각각 당선됐다. 직원노조에서는 김종현, 이광봉 후보가 215표를 받아 장백기, 김종민 후보의 205표를 제치고 당선됐다.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양 캠퍼스 모두 투표율을 성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경우 57.6%, 국제의 경우 63.9%의 찬성률을 기록 3분의 2 이상을 기록하지 못해 모두 낙선했다.

Newsmaker

2016년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
원종건(언론정보학 2012)



경험에서 나온 타인을 위한 삶

기호용 기자 kihodori2@khu.ac.kr

#. 오늘날 대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은 졸업과 취업을 위한 ‘의무’가 돼버렸다. 봉사활동을 원래 의미와 다르게 하나의 스펙으로 생각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에도 진심으로 타인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인정받아 2016년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한 원종건(언론정보학 2012) 군을 만났다.

2005년 MBC에서 방영됐던 예능 프로그램 <느낌표>에는 각막기증과 수술로 시력을 회복하는 ‘눈을 떠요’라는 코너가 있었다. 이를 본 사람은 원 군을 기억할 수도 있다. 과거에 원 군과 그의 어머니는 이 프로그램에 소개됐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처음 아들의 얼굴을 보게 된 어머니와 아들이 포옹하는 장면에선 많은 시청자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방송 이후의 삶에 대해서 원 군은 “나 자신을 위한 삶보다는 타인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며 “어려운 선택에는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실제 원 군의 어머니는 수술 후 원 군과 함께 1층에 내려가 장기기증서 약서를 작성하며 “우리도 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자”고 말했다고 한다.

성인이 된 이후 원 군은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네팔에서의 사진촬영 봉사, 교육 소외지역에서의 강연봉사, 그리고 51차례의 헌혈 등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있다. 그는 “봉사활동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여유 있는 것들을 정

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부를 나눠주는 일이다”라며 “그것이 재능이든 시간이든 누구든지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봉사활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전달했다.

오늘날 사람들이 봉사활동에 대해 갖는 태도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봉사활동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대가없는 행동이다”라며 “무언가를 위한 봉사활동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봉사활동을 졸업이나 취업의 요건으로 넣고 있는 사회시스템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봉사활동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대가없는 행동이다

그는 최근 병어리장갑을 엄지장갑으로 바꿔 부러지는 취지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병어리장갑의 어원은 명확하지 않으며 우리는 무심코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원 군은 “병어리라는 말이 장애인을 낮잡아 부르는 만큼 다른 말로 순화해 보고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반응은 뜨거웠다. 프로젝트를 위해 시작한 크라우드 펀딩에는 모금 하루 만에 300만원이었던 목표 금액의 4배가 넘게 모였다.

시력과 청력이 약한 사람들의 소통을 돕고 싶어 언론정보학과에 진학했다는 그는 어느덧 사회로 첫발을 내딛을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심이 많은 그는 졸업 후 한 기업의 사회공헌담당자로 들어갈 예정이다. 취업 후에도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일’들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는 그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해 본다.

구멍 뚫린 선거시행세칙 ... 선거 운영에 혼란 키워

국제권 선거 파궤

양윤혁 기자 yangyun0820@khu.ac.kr
김성수 기자 korkeep@khu.ac.kr

【국제】2017학년도 학생회 선거가 지난 23일 유여곡절 끝에 마무리됐다. 하지만 개표과정에서 총학생회(총학)와 총여학생회(총여)의 선거인명부가 뒤바뀌고, 일부 단과대학에선 자물쇠 열쇠가 총학 투표함에 함께 봉인되는 등 미숙한 선거운영이 반복됐다. 이런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의 미숙한 대응과 선거시행세칙의 허점 탓이다.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는 임후보자가 없었던 생명과학대학과 국제대학을 제외한 6개 단과대학에서 치러졌다. 이 중 ▲외국어대학(외대) ▲전자정보대학(전정대) ▲응용과학대학(응용대) ▲공과대학(공대), 총 4곳에서 선관위의 실수로 개표에 차질이 빚어졌다.

전정대에서는 선관위원들이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투표함을 열기 전에 진행돼야 했던 공명선거 및 선거의 결과를 인정하는 선서를 하지 않았다. 결국 임후보자의 이의제기로 개표 도중 뒤늦게 시행했다. 또한 최종 개표 결과를 저장한 문서를 유실

해 우리신문의 자료를 토대로 당선공고를 내기도 했다.

응용대에서는 투표함 자물쇠 부분의 서명이 문제가 됐다. 통상적으로 서명은 투표함 자물쇠와 테이프 부분에 걸쳐 표기돼야 한다. 임의로 개봉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응용대의 경우 테이프에만 서명이 이뤄져 사실상 자물쇠 개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관련된 사항이 세칙에 명시돼 있지 않고,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진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선관위 박수지(산업경영공학 2014) 위원장은 “밀봉 및 서명 등

에 대한 내용은 세칙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 지난 중선관위에 인수인계 받은 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대의 경우 단과대학 학생회 투표함 열쇠가 총학·총여 투표함 열쇠와 뒤바뀌었다. 결국 해당 열쇠가 봉인된 물품보관함을 찾아 개봉하고 다시 밀봉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공대 제 3투표소에서도 단과대학 학생회 투표함 열쇠를 총학·총여 투표함 열쇠와 함께 봉인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3면으로 이어짐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 ▶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전문가 칼럼

헌법개정, 과연 필요인가
정완(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7면



이번 호가 2016학년도 2학기 종간호입니다